

기독교 정체성에 대한 조망과 대응

류 응 렬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설교학

1 들어가는 말

1.1 도전 받는 기독교의 정체성

현대 기독교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07년도 아프간피랍사태 이후로 기독교회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타이타닉처럼 갖가지 암초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적으로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기독교라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갖가지 문제들이다. 정체성(identity)이란 사전적 의미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는 말로 표현된다.

* 논문접수일: 2010. 10. 27

논문수정일: 2010. 11. 21

게재확정일: 2010. 12. 8

기독교 정체성이란 시대와 상황과 관계없이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유지하는 고유한 성질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친 것을 정립한 체계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직면한 기독교의 정체성은 세상의 정체성 상실과도 맞물려 있다.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고유한 정체성이란 포스트모던 시대에 해체주의라는 이름 앞에 더 이상 가치를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 세상은 자신을 얻어 매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을 해방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찬양해 왔으며 인간을 억압시키는 중심부에 신이라는 이름을 새겼다. 소위 신으로부터의 해방은 진정한 인간을 되찾는 첫 걸음으로 인식된다. 기독교가 직면한 정체성의 혼란이란 외부로부터의 공격뿐 아니라 내적인 혼란도 심각하다. 밖으로부터 적들이 밀려올 때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자신을 수호하고자 방어기제가 일어났다. 내부로부터 나타나는 문제들은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을 일그러지게 만들고 결국 왜곡된 기독교로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기독교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는 데는 다양한 요소가 있다.

1.2 정체성 혼란의 다양한 모습

기독교의 정체성 혼란은 몇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기독교의 절대진리의 문제다. 오늘날은 ‘절대’ 라는 말이나 ‘유일’ 이란 단어가 공격받는 시대가 되었다. ‘절대자’ 라든지 ‘유일한 진리’ 라는 이름은 독단적인 가르침으로 배척 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의 기독교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체계에서 상대적인 하나의 종교로 자리매김하려 한다. 둘째, 기독교라는 이름과 성경을 경전으로 내세우지만 잘못된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도 문제다. 가시적인 현상을 기독교의 증거로 삼으려는 주장도 문제이지만 삶의 변화를 수반하지 못하고 기독교를 관념의 박스로 묶어버리는 현상도 심각하다. 종교적인 삶을 진리로 둔갑시키는 율법주의는 기독교가 아니

다.

셋째, 기독교라는 이름을 지닌 잘못된 신학도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다. 자유주의라는 이름이 예수와 기독교라는 명칭으로 신학교와 교회 속에 침투해 있다. 자유주의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인간을 위해 성경을 해석한다. 신학이란 체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결과이기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을 때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고 학문의 놀이터로 전락한다. 넷째, 문화 속에 매장되는 기독교도 문제다.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의 변두리에서 계토처럼 취급될 때가 있었다. 오늘날 기독교는 세련된 문화로서 시대를 주도하는 하나의 정신문화 혹은 삶의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기독교는 정당한 문화를 탄생시키지만 기독교적인 문화가 기독교를 대신할 수는 없다.

다섯째, 성경에 대한 다양한 시각 역시 기독교의 정체성을 혼란 킨다. 기독교란 성경의 계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계시의존사색’을 근간으로 한다.¹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 계시로 여길 것인가 계시를 담은 하나의 책으로 여길 것인가? 라는 문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것인지 사람의 책으로 여길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아니라면 외양만 기독교일 뿐이다. 여섯째, 성경의 가르침과 삶의 불일치 또한 기독교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신앙이란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며 기독교인의 삶은 진리에 일치해야 한다. 특히 현대인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 문제는 기독교 내부적 위협뿐 아니라 사회적 지탄을 부르는 주범이다. 일곱째,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경험 속에 가두는 위

1 ‘계시의존사색’이란 박윤선이 평소 즐겨 사용한 표현으로 신학을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체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박윤선은 “성경은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믿어야 된다. 먼저 믿고 시작해야 된다. 그 누구도 성경을 믿지 않고는 성경의 진리를 알 도리가 없다. 성경, 즉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진리는 먼저 믿고 다음에 알게 된다”고 지적한다. 하나님의 계시에 온전히 의존하지 않고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서울: 영음사, 1992), 150.

험 역시 기독교의 정체성을 혼란 시키는 요인이다. 체험되어야 비로소 진리가 된다는 주장은 ‘내가 느껴야 진리가 된다’는 주관의 영역에 객관적인 진리를 복속시킨다.²

기독교 역사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총체적인 도전과 위기의 시기는 흔하지 않다. 현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필자는 본 글에서 기독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조망하고 그 대응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실천신학적 차원에서 기독교 정체성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과제를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 정체성 출발로서 진정한 기독교는 성경의 무오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 둘째, 기독교 정체성의 핵심으로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정체성의 표출로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기독교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과제를 정리하고 글을 맺고자 한다.

2 성경관: 기독교 정체성의 출발

기독교 정체성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기독교를 탄생하고 지탱하는 하나

2 최근의 설교학(New Homiletic)은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주관적인 경험이나 체험으로 중심축을 옮기는 경향을 보인다. 체험과 경험에 대한 강조는 자연히 본문보다 청중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최근의 설교학이 경험을 강조하는 주관성에 흐르는 것과 관련하여 김슨 교수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첫째, 해석자와 본문에 대한 문제로서 성경 본문에 권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청중에게 권위를 둔다. 둘째, 객관적인 성경의 진리는 약화되고 주관성이 지나치게 강조된다. 셋째, 결국 성경의 권위 대신 주관과 경험이 중심을 차지한다. 김슨은 경험에 체험에 대한 강조는 현대 자유주의의 가르침이나 전제에 근거한다는 점을 밝힌다. Scott M. Gibson, “Critique of the New Homiletic: Examining the link between the new homiletic and the new hermeneutic,” in *The Art and Craft of Biblical Preaching: A Comprehensive Resource for Today’s Communications*, ed. Haddon Robinson and Craig Brian Larson (Grand Rapids: Zondervan, 2005), 478-481.

님의 계시인 성경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기독교란 성경의 계시 위에 세워진 가르침이며, 신학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학문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다. 성경의 무오를 강조하는 맥고원(A. T. B. McGowan)은 *The Divine Authenticity of Scripture*에서 성경에 대한 관점의 중요성을 밝힌다. “성경을 어떻게 믿는가는 다른 모든 것을 어떻게 믿는가를 결정한다.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는다면 다른 모든 견해는 성경과 관련하여 결정된다.”³ 맥고원이 말한 것처럼 성경에 대한 자세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⁴ 성경은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의 완전한 규범이 되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대한 관점은 설교에도 직결된다. 도날드 맥킴(Donald McKim)은 설교자들의 성경관에 따라 설교가 결정된다고 지적한다.⁵ 데이빗 라슨(David Larsen)은 성경의 권위가 상실되면 설교는 치명적 영향을 입는다고 밝힌다.⁶ 철저한 성경관을 벗어난 기독교의 정체성은 확립될 수 없다.

2.1 성경에 대한 잘못된 시각

3 A. T. B. McGowan, *The Divine Authenticity of Scripture: Retrieving and Evangelical Heritage* (Downers Grove, 2007), 9. 저자는 계속해서 성경의 절대성에 관하여 밝힌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성령의 돌보심 아래 기록된 것이고 성경 안에서 또는 성경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을 내리는 일과 진리를 결정짓는 일에 최종적인 권위를 지닌다” (9-10).

4 성경에 대한 논의에 관한 다음의 책들을 참조하라. Jack Rogers and Donald McKim,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San Francisco: Harper & Row, 1979); John Woodbridge, *Biblical Authorit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1983); Earl D. Radmacher and Robert Preus, eds., *Hermeneutics, Inerrancy, and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1984).

5 Donald K. Mckim, *The Bible in Theology and Preaching: How Preachers Use Scrip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15.

6 David L. Larsen, *The Anatomy of Preaching: Identifying the Issues in Preaching Today*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89), 23.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한 도전이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첫째, 성경 전체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계시된 말씀이라는 주장이 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는 것이다. 성경이 1세기의 세계관 속에서 당시의 신화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기록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당시의 신화적 세계관을 걷어내고 성경을 읽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적인 성경관을 정립해야 한다(딤후 3:15-17). 둘째, 성경은 기록된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주장도 있다. 성경은 문자에 불과하고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실존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 자체가 영감된 말씀임을 인정한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다. 개인에게 부딪혀 올 때 진리가 된다는 것은 절대 진리를 주관적 영역 속에 빠트리는 오류다. 따라서 주해와 설교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⁷ 셋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문학이라는 주장도 있다. 성경의 각 책들은 고유한 문학적 특색을 지니고 저자들은 문학 기법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제시한다는 말이다. 성경이 문학적인 요소를 지닌다는 말과 성경이 문학이라는 말은 다르다. 거룩한 말씀은 독자에게 경건한 태도를 요구한다.

7 개혁신학을 정초한 칼빈은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여겼다. 말씀을 바르게 설명하는 설교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칼빈은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첫째,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째, 설교자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권위 있게 말하기 때문이다. 셋째, 설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칼빈의 이러한 설교관에 대해서는 류응렬, “Calvin의 설교에 나타난 성경 해석 방법론,” 『설교한국』(창간호, 2009년 가을), 233-235를 참조하라.

2.2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기독교의 정체성은 성경의 무오에 근거한다.⁸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은 성경적인 성경관이 무너질 때 시작된다. 성경에 관하여 밝히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라.”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5-17).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몇 가지의 특징을 지닌다. 첫째, 성경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있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의미다. 어떠한 오류나 실수를 포함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둘째, 이 말씀은 성경 기록의 목적을 두 가지로 나타낸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구원과 거듭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성화다.⁹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성경이 강조하는 기독교의 근본진리다. 구원은 변화된 사람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한다. 구원이 내면적인 변화라면 삶은 외

8 성경의 무오와 영감을 지지하는 고전으로 노만 가이슬러가 편집한 *Inerrancy*를 참조하라. 이 책은 1978년 성경무오 국제대회(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iblical Inerrancy, ICBI)에서 발표한 14명의 학자들의 글을 모은 것으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어떻게 영감이 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기록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는지 매우 심도 있게 다룬다. Norman L. Geisler (ed.), *Inerranc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0).

9 성경이 인류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설교의 목적도 동일하게 보여준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살아난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구원과 성화가 그 목적이다. 바울의 설교는 구원과 성화라는 구도를 잘 보여준다. 바울의 이러한 설교철학에 관해서는 필자의 글을 참조하라. 류응렬, “바울의 설교를 통해 본 개혁주의 강해설교: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신학지남』 281호 (2004년 겨울호).

면적인 변화다.

바울이 말하는 성경관에 근거할 때 기독교의 정체성의 혼란을 막을 것이다. 개혁신학이란 성경에 근거한 신학체계다. 박윤선 박사는 개혁주의를 성경주의라고 표현했다. 개혁신학이란 성경이 말씀하는 신론, 인간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 등을 다룬다. 칼빈의 5대 교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개혁신학이 강조하는 언약 신학과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의 세계관 역시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성경이 신앙과 삶의 절대 규범으로 인정되는 곳에 기독교의 기초가 놓여져야 한다.

2.3 성경의 권위에 세워지는 기독교

기독교의 정체성은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직결된다. 성경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진다. 월터 카이저(Walter C. Kaiser)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신앙은 헛것이라고 답변한다.¹⁰ 기독교 신앙이란 성경에 근거한 것이기에 성경이 거짓이라면 모든 신앙은 헛된 것이다. 새로운 설교의 바람을 일으킨 데이빗 버트릭은 성경이 초대교회의 배경 속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21세기의 신앙인들은 성경을 그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신화적 세계관을 벗어 던지고 읽을 것을 주장한다.¹¹ 예수님이 물위를 걸어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난 것

10 Walter C. Kaiser, Jr. *Toward Rediscovering the Old Testament* (Zondervan Publishing Company, 1991). 카이저는 램지(George W. Ramsy)의 *The Quest of the Historical Israel* (Atlanta: Knox, 1981)에서 그가 성경이 역사적 허구라 할지라도 신앙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주장을 반박한다.

11 David G. Buttrick, *Homiletic: Movers and Structur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버트

이 아니라 고난 받는 초대교회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하나의 플롯으로 이해한다.

성경의 무오성이 무너지는 곳에 기독교 정체성의 위기가 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위한 헌신은 헛된 일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자리에 윤리나 문화가 차지한다. 십자가의 복음은 다원주의적 가르침에 빛을 잃는다. 성령이 사라진 관념의 신학이 도래한다. 성경의 무오성이 무너지면 설교나 가르침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성경을 전하는 대신 인간의 체험과 경험이 자리한다. 이것이 오늘날의 설교가 보여주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¹² 성경관이 약화되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해야 할 당위성도 상실한다. 진리에 반응하는 설교가 아니라 청중이 은혜 받는 것을 목적으로 설교가 진행된다. 성경은 선포해야 할 절대 진리가 아니라 삶을 위한 하나의 지혜서 역할을 할 뿐이다.

개혁신학의 체계를 세운 칼빈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을 일생의 사명으로 여겼다. 성경이 바르게 해석될 때 올바른 기독교의 신앙이 세워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뜻을 찾는 일이다.¹³ 성경해석에 대한 관점은 어떤 설교를 하는 것과 직결된다. 설교자는

릭과 더불어 최근의 설교학을 주도하는 프레드 크래독과 유진 로우리의 성경관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류응렬, “새 설교학자들의 성경관과 개혁주의 설교,” 『개혁논총』 10권 (2009년), 269-296을 참조하라.

12 최근 설교학의 핵심에는 성경의 객관적 진리를 해석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체험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객관적 진리를 체험이라는 주관성에 복속시킨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최근 설교학에 대해서는 다음 책들을 참고하라. Fred B.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Nashville: Abingdon Press, 1971); Eugene L. Lowry, *The Homileti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Form*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0; reprint, 2001); Buttrick, *Homiletic: Moves and Structures*.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찾기 위해 맘을 흘려야 한다.

지금까지 기독교 정체성을 세우는 출발로 성경관을 지적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영감 된 말씀으로 확신해야 한다. 진리의 말씀은 신학과 설교에서 우리의 자세에 변화를 요구한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산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합당한 자세와 반응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는 기독교 정체성을 세우는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이다.

3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정체성의 핵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성경은 타락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는 하나님의 활동을 보여준다. 성경 해석에 관한 시카고 선언문(The Chicago Statement on Biblical Hermeneutics)은 기독교의 핵심인 그리스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모든 성경의 중심이다.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는 것을 거부하거나 애매하게 하는 어떤 해석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당하다고 여기지 않는다.”¹⁴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가운데 한 요소가 아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핵심을 이

13 저자의 의도를 우선적으로 찾고자 하는 해석적 흐름을 ‘저자중심의 해석학’(author oriented hermeneutics)이라고 부른다. 문학비평에서 대표적인 책으로 E.D. Hirsch, Jr., *Validity in Interpret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7); *The Validity of Interpret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을 보라. 허쉬의 이론에 근거하여 신학적으로 적용한 책으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Walter C. Kaiser, *Toward an Exegetical Theology: Biblical Exegesis for Preaching and Teaching*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Robert H. Stein, *A Basic Guide to Interpreting the Bible: Playing by the Rule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Kevin J. Vanhooser,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8).

14 In *Hermeneutics, Inerrancy and the Bible: Papers from ICBI Summit II*, ed. Earl D. Radmacher and Robert D. Preus (Grand Rapids: Zondervan, Academic Books, 1984), 890-91.

룬다.

3.1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최근에 *Christless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마이클 호튼(Michael Horton)은 “사탄이 도시를 점령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만일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점령한다면 모든 술집은 문을 닫을 것이다. 선정적 문화는 사라질 것이고 거리는 서로간에 웃으며 인사하는 말쑥한 사람들로 넘쳐날 것이다. 저주 같은 말은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예, 선생님’ 혹은 ‘예, 부인’ 하면서 공손하게 말할 것이다. 주일마다 교회는 사람들로 북적거릴 것이다. … 그러나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¹⁵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독교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과 구원 받은 백성의 새로운 삶이 사라진 복음은 인간중심의 윤리로 전락한다. 브라이언 채플은 “십자가 이전에 존재했던 율법과 선지자들 그리고 십자가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도들의 사역에서도 예수는 중심을 차지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구세주 자신도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구원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증언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강해설교는 그리스도 중심 설교이다.”¹⁶ 데이빗 라슨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설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¹⁷

15 Michael Horton, *Christless Christianity: The Alternative Gospel of the American Church* (Grand Rapids: Baker Books, 2008), 15.

16 Bryan Chapell, *Christ-cente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reprint, 2001), 279-280.

17 Larsen, *The Anatomy of Preaching: Identifying the Issues in Preaching Today*, 165.

현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정체성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 그리스도가 중심 되지 못하는 기독교는 더 이상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가 아니다. 말세에 변질된 복음에 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딤후 4:3-4). 자신의 귀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복음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이 아니다. 낮아진 자존감을 높여줄 복음, 삶을 지혜롭게 살게 하는 처세술 같은 복음,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을 위한 인생특강 같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대신하는 종교일 뿐이다.

3.2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

벤 게메렌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해석학적 중심을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성경의 핵심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모든 활동,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모든 계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발전, 그리고 구원이 가져다 두는 모든 혜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¹⁸ 헤르만 리덜보스는 모든 바울의 설교를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도래한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⁹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의 중심일 뿐 아니라 기독교 설교의 핵심을 차지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은 기독교 정체성을 위협하는 다른 요소와는 다르다. 성경관이 기독교의 뿌리를 형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기

18 Willem VanGemeren, *The Progress of Redemption: The Story of Salvation from Creation to the New Jerusalem*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8), 27.

19 Herman Ridderbos,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trans. John Richard De Witt (Grand Rapids: Eerdmans, 1975; reprint, 1997), 253

독교 정체성의 줄기에 해당한다.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활동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기독교는 어떠한가? 첫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복음은 인간 중심의 종교로 전락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소개한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이름, 구원 받은 백성이 따라야 할 대상,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많다는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스도가 중심 되지 않으면 구원을 위한 인간의 행동을 강조한다. 신앙인의 행동은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야 한다.²⁰

둘째,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가르치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가르친다. 복음이 살아나지 못할 때 진정한 기독교는 결코 세워질 수 없다. 개혁신학은 복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율법도 바르게 이해할 것을 가르친다. 율법의 행위로 복음에 이르고자 하는 노력은 하나의 인간종교를 창조해 낼 뿐이다.

셋째, 윤리나 철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오늘날 기독교는 삶을 바꾸는 진리가 아니라 삶을 고양시키는 철학으로 전락하고 있다.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구세주가 아니라 삶에 모델이 되는 지도자가 되거나 윤리의 모델이 되기도 한다. 기독교의 복음은 삶을 고양

20 바울서신은 구원과 성화라는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의 전반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후반부에서 복음에 합당한 신자의 삶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4:1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명령한다.

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다. 성경의 예수는 인격과 수양의 대상이 아니다. 고양된 삶과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추구되어야 할 신자의 삶이다.

넷째,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구원뿐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가르쳐야 한다.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 종교라면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축복은 강조하면서 믿음에 따르는 십자가와 고난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반쪽의 기독교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요청하는 예수님이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하는 바울을 배워야 한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정체성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감수하는 삶이다.

다섯째,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놓여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일 뿐 아니라 기독교 정체성의 핵심이다. 신학과 설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가르침이 나타나야 한다.²¹ 특히 구약을 해석할 때 신약의 빛으로 해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약의 저자들과 예수님은 기독교론적으로 구약을 해석한다.²² 기독교

21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란 예수님의 인격, 사역, 가르침을 총체적으로 가리킨다.

22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 설교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할 것을 강조하는 다양한 책들을 참조하라. Edmund P. Clowney, *The Unfolding Mystery: Discovering Christ in the Old Testament* (Phillipsburg: P&R, 1988); *Preaching Christ in All Scripture* (Wheaton: Crossway Books 2003); Graeme Goldsworthy, *Preaching the Whole Bible as Christian Scripture* (Grand Rapids: Eerdmans, 2000); Ernst W. Hengstenberg, *Christolog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Kregel, 1970; reprinted); Walter C. Kaiser, *The Messiah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5). 신약의 저자들이 모형론적으로 구약을 해석한 것을 집대성한 책으로는 Leonhard Goppelt, *Typos: The 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trans. Donald H. Madvig (Grand Rapids: Eerdmans, 1982), 모형론의 고전으로는 David L. Baker, *Two Testaments, One Bible: A Study of Some Modern Solutions to the Theological Proble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and New Testament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1976),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그리

설교를 가능하는 척도는 구원하고 성화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된 기독교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한다 해도 그 의미가 혼란한 시대다. 신앙인이 규범으로 따를 수 있는 예수는 오직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할 당위성을 라슨은 강조한다. “기독교 설교자는 구약을 설교하든 신약을 설교하든 그리스도를 최종적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기독교 설교자는 구약의 어떤 본문이라도 랍비가 설교하듯 설교해서는 안됩니다.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살기 때문입니다.”²³

4 신앙과 삶: 기독교 정체성의 방향

지금까지 필자는 기독교 정체성을 확립을 위해 먼저 성경관에서 시작했으며 그 메시지의 핵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다. 이제 기독교 정체성의 방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진정한 신앙은 필연적으로 삶을 수반한다. 신앙 없는 삶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듯이 삶이 없는 신앙은 관념에 불과하다. 특히 오늘날처럼 한국교회 안에서 신앙과 삶의 문제가 대두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부재는 복음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를 몰고 왔다. 개혁신학이란 성경에 근거한 신학체계를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여 변화를 주도하는 가르침이다. 신앙과 삶의

스도의 시각으로 해석한 책으로 Vern S. Poythress, *The Shadow of Christ in the Law of Moses* (Phillipsburg: P&R, 1991)를 보라. 이와 관련된 설교학 책으로는 Chapell, *Christ-cente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Sidney Greidanus,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A Contemporary Hermeneutical Method* (Grand Rapids: Eerdmans, 1999), 그리고 Dennis E. Johnson, *Him We Proclaim: Preaching Christ from All the Scripture* (Phillipsburg: P&R, 2007) 등을 참고하라.

23 Larsen, *The Anatomy of Preaching: Identifying the Issues in Preaching Today*, 163.

문제는 신학과 세상, 교회와 사회, 신앙과 실천, 교리와 윤리, 본질과 상황, 이론과 실제, 또는 주해와 적용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제기된다. 전반부가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의 본질적 측면이라면 후반부는 기독교 본질이 표출되는 삶의 양태이다. 전반부에 근거하여 후반부로 나아갈 때 기독교로 세워진다.

4.1 신앙과 삶의 불균형

신앙과 삶의 불균형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첫째, 신앙에 쏟는 관심만큼 삶에 관심을 두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기독교의 진리를 신학체계에 국한시키고 성경에 대한 탐구와 논쟁은 있지만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때 세상 변혁을 향한 기독교를 꿈꿀 수는 없다. 보수신학을 지향하는 신학일수록 후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청된다. 진정한 개혁신앙은 성경에 근거한 전반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마땅한 변화를 주도하지 못할 때 기독교회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 앞에 놓인다. 때로는 기독교에 대한 비난의 핵심이 기독교 자체에 대한 비난보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한 비난이다. 입으로 외치는 신앙을 삶으로 보이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오늘날 기독교인은 세상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다. 최근에 여론 조사에서 목회자의 신뢰도는 신부와 승려 다음으로 가장 낮은 위치를 차지했다.²⁴ 기독교의 신뢰 상실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가르침대로 살지 않

24 2009년 8월 주간지 '시사저널' 이 여론조사기관인 (주)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직업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목회자는 총 33개 직업군 가운데 25위로 나타났다. 신부 11위, 승려 18위, 그리고 목회자는 25위에 올랐다. 신부의 경우 '신뢰한다' 는 응답이 76.4%였으며 '신뢰하지 않는다' 의 20.6%보다 거의 네 배 정도 높았다. 승려의 경우 '신뢰한다' 64%에 '신뢰하지 않는다' 32.4%보다 두 배 높았다. 목회자는 조사대상 가운데 53.7%가 '신뢰한다' 로 나타나고 42.7%가 '신뢰하지 않는다' 로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는 삶이다. 신앙과 삶의 불일치는 결국 기독교 진리로 향하는 문을 막아버린다는 데 있다. 사회와 세상에 관하여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도 비난의 주요 원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불균형의 문제는 내면적 신앙이 외형적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에 있다. 둘째 문제는 기독교 내면적인 부분으로 실천적인 삶을 신앙보다 우선함으로써 기독교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경우이다. 민중을 위한 기독교, 억압 받고 고난 받는 백성을 위한 예수, 인권을 위한 지침서로 성경을 만들어버리는 것은 모두 기독교의 본질보다 삶을 앞세운 결과로 나타난다. 기독교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하여 실천을 지향해야 한다. 말씀이 약화된 실천도 실천이 상실된 말씀도 기형적 기독교다.²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된 신앙은 삶을 통해 세상 속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다. 기독교란 전자에 근거한 후자, 즉 신앙에 근거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성경과 기독교의 이름으로 나아가도 사회적인 이슈와 인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치중하는 신학은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지 않는 경건한 삶이란 윤리나 철학의 종교를 만들어 낼 뿐이다. 실천과 윤리는 구원을 향한 과정이 아니라 구원에서 비롯되는 삶의 방향이라야 한다.²⁶

25 바울서신은 신앙에 근거하여 삶으로 나아가야 할 구도를 잘 보여준다. 이에 대한 논의는 William D. Dennison, "Indicative and Imperative: The Basic Structure of Pauline Ethics," *Calvin Theological Journal* 14 (1979): 55-78; Michael Parsons, "Being Precedes Act: Indicative and Imperative in Paul's Writing," *Evangelical Quarterly* 60 (1988): 99-127를 참조하다.

26 메이첸은 복음에 근거하여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밝힌다. 삶으로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을 자유주의의 발현으로 보았다. J. Gresham Machen, *Christianity and Liberalism* (Grand Rapids: Eerdmans, 1923; reprint, 2001)을 참조하라.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의 전반부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선포하고 후반부에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촉구한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1-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과 만물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4-6장에서 구원 받은 사람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강조한다. 후반부의 실천적인 삶은 전자의 말씀에 근거한다.

4.2 실천으로 변증되는 진리

진정한 기독교란 신학과 삶의 체계가 조화를 이룰 때 정립된다. 성경의 무오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기독교의 내적 정체성을 확립한다면 실천은 세상 속에서 기독교 정체성을 확립한다. 신앙과 실천의 균형을 위해 몇 가지의 과제가 요구된다.

첫째, 기독교의 가르침은 신앙과 실천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실천적인 삶을 동일하게 강조한다. 산상수훈은 부름 받은 제자들이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덕목을 보여준다. 율법에 사로잡혀 사랑을 상실한 종교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행동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였다. 신앙과 실천의 조화는 바울의 가르침에도 잘 나타난다. 바울 서신은 거의 동일한 구조를 지닌다. 전반부에는 하나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구원을 선포하고 후반부에는 구원 받은 백성들의 삶을 다룬다.²⁷ 바울은 교리와 신학에 근거하여 삶의 윤리와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한다.²⁸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전반부의 신학적 가르침에 근거하여 후반부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점이다. 바울은 삶의 실천을 촉구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한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라는 말이다.

둘째, 기독교 역사는 신앙과 실천의 조화를 통해 진리를 선포해 왔다. 초대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와 실천의 공동체를 함께 보여준다. 로마 정부 속

27 신학과 신앙에 근거하여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모범을 잘 보여주는 캐릭의 책을 참조하라. John Carrick, *The Imperative of Preaching: A Theology of Sacred Rhetoric* (Edinburgh: Banner of Truth, 2002).

28 예를 들어, 로마서 1-11장까지 신학과 교리를 강조한다면 12-15장에서는 실천적 윤리를 강조한다. 이런 예로는 갈 5:25, 고전 1:10; 4:16; 6:12-20; 16:52; 고후2:8; 6:1; 10:1; 빌 2:12-13; 4:1; 살전2:12; 3:2; 4:1, 10; 5:14; 살후3:2; 딤후2:1 등을 있다.

에서 기독교 사회는 ‘국가 속의 국가’ 또는 ‘사회 속의 사회’라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었다.²⁹ 한국교회 초기 역사도 신앙과 실천의 조화를 잘 보여준다.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라는 이름은 곧 애국이라는 말과 일치될 정도였다. 일제침략기에 억압받는 민족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신앙에 근거하여 독립운동을 벌였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삶을 던졌다. 3.1 독립선언을 주도한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으며 대부분은 목사요 장로였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사람을 향한 실천으로 표출되었고 그 때 세상은 기독교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신앙과 실천의 유산을 재현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요구하는 마땅한 책임이다.

셋째, 개혁신학은 신학체계뿐 아니라 삶의 체계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신학이다. 개혁신앙은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도 없다. 칼빈은 성경을 가르칠 뿐 아니라 제네바를 하나님이 도성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부여한 일이기에 사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도록 가르쳤다. 신자의 삶에 복음에 합당한 변화를 촉구한 것은 무엇보다 칼빈의 설교에 잘 나타난다. 신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설교는 주석보다 세배나 길다.³⁰ 칼빈 스스로도 강단에 오르면서 늘 울조리곤 했다. “설교자가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 노력하지 않는다면 강

29 로핑크는 이러한 사회를 잘 보여준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공동체로서의 이러한 모습은 세상 속에서 대조사회(Gegengesellschaft) 혹은 대척사회(Gegengesellschaft)를 이루며 세상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었다. 예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이러한 제자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실재라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세상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늘에로 뭉쳐진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사회다. 게르하르트 로핑크,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정한교역(서울: 분도출판사, 1985).

30 예를 들어 칼빈의 에베소서 주석은 한 주석 당 약 2,000자 정도의 길이인 반면 설교는 한 편당 약 7,000자 정도로 되어 있다.

단에 오르면서 목이 부러져 죽는 것이 낫다.” 개혁주의 신학의 광맥을 잇는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다. 그의 설교는 본문에 대한 주해와 교리에 대한 해석이 전반부를 차지하고 후반부의 반 정도가 신앙인의 구체적인 삶을 다룬다.³¹

넷째, 실천을 지향하는 개혁신학은 빛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을 배양해야 한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여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변화의 우선대상은 그리스도인 자신이며 교회 자체다. 기독교의 정체성이란 성경에 대한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신앙 그리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구현된다. 오늘날 위기에 처한 기독교의 모습을 세워나갈 가장 중요한 힘은 변화 받아 변화시켜 나갈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5 나오는 말

필자는 본 소고에서 오늘날 기독교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소와 이유를 살피면서 바람직한 기독교 정체성 정립을 위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기독교의 정체성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기에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위에 기독교가 정초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전파를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사라지면 인간의 종교나 고양된 윤리 혹은 철학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마지막으로 성경관과 예수의 복음에 근거하여 신앙과 실천의 조화를 강조했다.

31 에드워즈의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한 편의 설교가 10페이지라면 한 페이지 정도에 걸쳐 본문에 대한 간단한 주해가 제시되고, 약 4-5페이지 정도를 할애하여 본문의 주제나 중심교리를 성경적, 신학적, 이성적 추론을 통해 설명한다. 나머지 4-5페이지 정도는 신자의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설교를 진행한다.

오늘날 도전 받는 기독교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는 오히려 성경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바르게 세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기독교는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해 빛이 나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의 비난을 교회를 향한 기대와 칭찬으로 바꾸어야 할 때다. 교회가 받는 칭찬은 결국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을 회복하고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참고문헌

- 류응렬. “Calvin의 설교에 나타난 성경 해석 방법론.” 『설교한국』 창간호 (2009년 가을호).
- _____. “바울의 설교를 통해 본 개혁주의 강해설교: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신학지남』 281호 (2004년 겨울호).
- _____. “새 설교학자들의 성경관과 개혁주의 설교.” 『개혁논총』 10권 (2009년 봄호).
-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서울: 영음사, 1992.
- Buttrick, David G. *Homiletic: Movers and Structure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 Carrick, John. *The Imperative of Preaching: A Theology of Sacred Rhetoric*. Edinburgh: Banner of Truth, 2002.
- Chapell, Bryan. *Christ-cente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Grand Rapids: Baker Books, 1994. Reprint, 2001.
- Craddock, Fred B. *As One Without Authority*. Nashville: Abingdon Press, 1971.
- Dennison, William D. “Indicative and Imperative: The Basic Structure of Pauline Ethics.” *Calvin Theological Journal* 14 (1979).
- Geisler, Norman L. (ed.), *Inerranc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0.
- Gibson, Scott M. “Critique of the New Homiletic: Examining the link between the new homiletic and the new hermeneutic,” in *The Art and Craft of Biblical Preaching: A Comprehensive Resource for Today’s Communications*, ed. Haddon Robinson and Craig Brian Larson. Grand Rapids: Zondervan, 2005.
- Horton, Michael. *Christless Christianity: The Alternative Gospel of the American Church*. Grand Rapids: Baker Books, 2008.
- Kaiser, Walter C. *Toward an Exegetical Theology: Biblical Exegesis for Preaching and Teaching*.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 Kaiser, Walter C. *Toward Rediscovering the Old Testament*. Zondervan Publishing Company, 1991.
- Larsen, David L. *The Anatomy of Preaching: Identifying the Issues in Preaching Today*.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1989.
- Lowry, Eugene L. *The Homileti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Form*.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0; reprint, 2001.
- Machen, J. Gresham. *Christianity and Liberalism*. Grand Rapids: Eerdmans, 1923. Reprint, 2001.
- McGowan, A. T. B. *The Divine Authenticity of Scripture: Retrieving and Evangelical Heritage*. Downers Grove, 2007.

- McKim, Donald K. *The Bible in Theology and Preaching: How Preachers Use Scriptur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 Parsons, Michael. "Being Precedes Act: Indicative and Imperative in Paul's Writing." *Evangelical Quarterly* 60 (1988).
- Radmacher, Earl D. and Robert Preus (eds.), *Hermeneutics, Inerrancy, and the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1984.
- Ridderbos, Herman.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trans. John Richard De Witt. Grand Rapids: Eerdmans, 1975; reprint, 1997.
- Rogers, Jack and Donald McKim, *The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of the Bible*. San Francisco: Harper & Row, 1979.
- Willem VanGemeren, *The Progress of Redemption: The Story of Salvation from Creation to the New Jerusalem*.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8.
- Woodbridge, John. *Biblical Authorit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1983.

국문초록

오늘날 한국기독교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절대진리가 사라지는 포스터모던 시대에 정체성의 위기는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야기된다. 필자는 본 글에서 오늘날 기독교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피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 성경적인 기독교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방향들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철저한 성경의 권위 위에 세워져야 한다. 성경이 영감 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원과 삶의 표준이라는 기초가 사라진 곳에 올바른 기독교는 세워질 수 없다.

둘째, 기독교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칠 것을 강조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성화를 이루는 근본적인 주체이다. 기독교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사라지면 결국 인본주의적인 설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고양된 윤리나 체계적인 철학 혹은 경건한 종교적인 교리가 예수를 전하는 메시지를 대신할 수는 없다.

셋째, 세상 속에서 기독교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 신앙과 삶의 일치를 강조했다. 특히 오늘날처럼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독교가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의 실천이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기독교를 통해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주제어 : 기독교 정체성, 성경 무오성, 믿음과 삶,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 개혁 신앙.

An Evaluation and Response to the Identity of Christianity

Ryoo, Eung-Yul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Today, Korean Christianity is facing an identity crisis; the postmodern world of relativism provides a rich breeding ground for various elements which undermine the identity of the Korean Church. Through this paper, I seek to define such elements, provide practical solutions to address and counter such elements, and offer guidelines to establish a truly biblical Christian identity for the Korean Church.

First, a biblical Christian identity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the Christian identity upon the firm foundation of the Bible; Christianity cannot be based on a foundation which does not acknowledge the Bible as the inspired Word of God and the complete standard by which Christians are meant to construct and live their lives.

Second, I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rrectly and accurately understanding Jesus Christ, the central element and cornerstone of Christian identity. Jesus Christ is the fundamental agent of our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and glorification; thus a Christian picture without the centerpiece of Jesus Christ is simply humanism and the Gospel without Christ is but mere philosophy. All of the moral, philosophical, or religious doctrines in the world can never replace the message of Christ.

Third, Christian identity within the postmodern world can only be secured by Christians whose faith and lives are unified and practiced consistently. It is only when the “salt and light of the world” cease to be scriptural terminology and become social and interpersonal reality that the world will see the God of the scriptures.

Key Words : Christian Identity, Biblical Inerrancy, Faith and Life, Christ-centered Christianity, Reformed Faith